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0월29일
(금요일)
- 1 면 -

북부신문



우이령에서 가을을 만나다

강북구, 23일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우이령 숲길 6km 구간, 북한산 정취와 우이령길 진면목 느껴

※ 웹접근성을 고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실 수 있도록 원본기사의 사진(황방향) 일부를 재편집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북한산 우이령에서 뜻 깊은 걷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3일 북한산 우이령 일대에서 개최된 '2010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바로 그것.

대회는 오전 9시 30분 집결지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을 출발, 우이령 정상에서 돌아오는 왕복 6km 구간에서 열렸으며, 걷기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 또는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우이령의 가을산을 감상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등산객들과 함께 우이령을 오르내린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우이령을 오르내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시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연결되는 비포장 흙길로 지난 1968년 121사태 이후 41년간 민간 출입이 통제돼,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산림과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하루 1,000명씩 예약제로 탐방이 가능하며, 최근 북한산 둘레길 코스로 개발돼 사랑받고 있다.



▲ 선두에서 출발하는 박경수 강북구청장과 유준성 강북구의회 의장(왼쪽).

동북일보

천혜의 비경 우이령길서 한마음 걷기대회

구민 1천여명 단풍으로 물든 북한산의 정취 맛보며 건강과 우의 다져

강북구(구청장 박경수)는 지난 23일 북한산 우이령길 일대에서 '2010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30분 집결지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을 출발, 우이령 정상에서 돌아오는 왕복 6km 구간에서 열렸으며, 걷기대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등산객들은 가족, 친구 또는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우이령의 가을산을 감상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등산객들과 함께 우이령을 오른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우이령을 오르내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시고 자연의 소중함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준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추사에서 "41년만에 개통된 우이령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 오늘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서



▲지난 23일 북한산 우이령길 일대에서 '2010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개최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강북갑)도 "걷기대회를 통해 우이령길이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으며, 오영식 민주당 강북갑지구당위원장과 이수희 한나라당 강북을당원협

의회 위원장도 축하를 했다.

이후 건강검진 김소영 강사의 지도 아래 올바른 걷기 요령에 대한 설명과 스트레칭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걷기에 돌입했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연결되는 비포장 흙길로 지난 1968년 1·21사태 이후 41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산림과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하루 1천명씩 예약제로 탐방이 가능하며, 최근 북한산 둘레길 코스로 개발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정치권 인사들의 추사에서 우이령길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산', 한나라당 관계자는 '삼각산'으로 호칭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김신규 기자 sfcman87@hanmail.net>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0월29일
(금요일)
- 2 면 -

동북일보

강북구의원들 다음달 일본에서 4박5일 해외연수

11월 7~11일 교토와 오사카에서 견학 돌아와서 의정에 반영할 계획

강북구의원들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일본 교토와 오사카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2010 제1차서울시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박문수 의원)는 26일 오전 11시 강북구의회에서 다음달에 있을 일본 연수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원들이 선진국의 환경과 관광정책을 보고 듣고 배워와 강북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경비와 모든 일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사회의에 앞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구의회의장실에서 있었다. 박문수·최선 의원을 비롯해 구의원 2명과 학계 1명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그 밖에 시민단체대표 2명 등 모두 5명의 위원이 위촉을 받았다.

박문수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최선 의원은 "3대 구

의회 때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가본 이후 6대 구의회 첫 해외연수로 기대가 된다"며 "교토는 환경협약으로 유명한 도시인 만큼 강북구의 북한산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것이 많으니까 되도록 많이 배우고 돌아오자"고 다짐했다.

김진숙 열린사회복지시민회 대표는 "의원들이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을 강북구에 맞게 제도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찬환 교수는 의원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여행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현지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견학을 해야 한다"며 "경주와 같은 역사도시 교토에서 특히 산과 관련해 강북구의 북한산에 맞게 어떻게



▲유근성 의장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과 의원들이 진작 잘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격려금을 준다는 말도 좋은 평가를 받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했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시정신문

일본 다테야마정의회 강북구 방문

학교·관광교류 활성화 논의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의 다테야마정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강북구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강북구와 다테야마정의 자매결연 체결 5년째를 맞아 상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학교 및 관광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박겸수 구청장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북구를 찾은 다테야마정의회 우보 다 이세이 의장과 의원 등 방문단 16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두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확성과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고 다테야마정의회 방문단은 강북구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만나 우의를 다지고 두 도시가 상호 협력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강북구 의회가 주관한 환영오후 이어서 오후 일정에서 방문단은 영훈·삼각산 초등학교 및 4.19국립묘지, 봉황각 등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강북구가 주관하는 환경만찬을 끝으로 강북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일본 다테야마정은 일본 4개월도 중 혼슈열도 내에 있는 토야마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북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산(해발 3015m)이 있는 인구 3만명의 세계적인 산악·관광도시로, 강북구와는 지난 2006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북부신문

강북구의회, 번동초교 학생 견학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은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시간동안 번동초등학교 3학년 21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을 실시했다.

열린사회 복지시민회가 주최한 이번 견학에서 학생들은 먼저 의원휴게실에서 의회의 역할 등을 설명 듣고 난 뒤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표방하고 있는 강북구의회의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을 각각 둘러봤다. 이와 관련, 유근성 강북구의회의장은 "큰 꿈을 가지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달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정신문



강북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 참석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웰빙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제16회 강북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에 참석, "동호인 여러분들 모두 태권도의 전통문화 계승과 세계화 기여에 감사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